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와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 비교*

Comparing Objective and Subjective Retirement Wealth Adequacies

상명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석 사 정 지 영**

교 수 양 세 정***

Dept. of Consumer and Housing Studies, Sangmyung Univ.

Master's Degree : Jung, Ji-Young

Professor : Yang, Se-Jeong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stimate objective retirement wealth adequacy and subjective retirement wealth, and to compare two of them. Also the factors relating to those wealth readiness were investigated. The data used was 422 pre-retiree who were married and under 65 years old and SPSS 20 was used for the analyses. The results showed that objective retirement wealth readiness was 37.6% and subjective retirement wealth adequacy was 40.9%. Almost half of the sample (44.8%) were indicated to have no objective retirement wealth, but only 5.9% was answered to have no retirement wealth. Both subjective and objective retirement wealth adequacies tended to increase with older age, higher income and lower average propensity to consume groups. The difference between objective and subjective retirement wealth adequacies was smaller with getting older. According to multi-variable analyses, two factors were found to affect on both the subjective and objective retirement wealth adequacies, which were income and retirement asset. The respondents were found to be not able to estimate their own retirement wealth adequacy objectivel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ubjective and objective retirement wealth adequacies was 0.344. Among the respondents, 74.4% answered bigger number on subjective retirement wealth than their objective retirement wealth.

▲주요어(Key Words) : 노후자금(retirement wealth), 노후자금준비도(retirement wealth adequacy),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objective retirement wealth adequacy),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subjective retirement wealth adequacy), 은퇴준비자금(retirement wealth prepared)

I. 서론

은퇴 후 어떻게 생활을 영위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

회적 이슈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는 노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최근 베이비부머들이 노령화의 길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은퇴시점은 점차 앞당겨지는 반면 평균수명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은퇴 후 사망하기까지의 기간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점차 보다 많은 수의 노인들이 보다 심각한 경제난을 보다 오랫동안 겪게 될 전망이다.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였음(과제번호: 210-A000-0117).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에서 부분 발췌되었습니다.

** 주 저 자 : 정지영 (E-mail : urdjung@gmail.com)

*** 교신저자 : 양세정 (E-mail : sjyang@smu.ac.kr)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평균 79.4세이며, 생활여건의 개선과 과학의 발전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2050년에는 평균수명이 83.5세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OECD, 2009). 우리나라 국민이 은퇴하는 평균연령이 55세라는 사실과 비교해 보았을 때(보험연구원, 2011) 은퇴이후의 노후기간은 최소 25년인 셈이다. 즉 일생의 1/4이 넘는 기간이 은퇴 후의 삶이 될 것이며, 은퇴준비는 인생설계의 중요부분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경각심과 함께 은퇴준비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어 왔으며, 특히 재정적 측면에서의 준비는 안정된 은퇴생활을 위한 중요한 기본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Baek, 2009).

은퇴준비 관련 연구는 재정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주를 이루어왔으며, 재정적 은퇴준비의 충분도를 다룬 연구가 소비자학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되어왔다. Baek(2008)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이후 은퇴 전 소득수준의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가계가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은퇴가계의 대다수가 은퇴 전에 비해 생활수준이 현격히 낮아짐을 알 수 있다. Yuh, Joung, and Moon(2007)은 중산층 은퇴이전의 가계를 대상으로 하여 은퇴준비가 충분한가를 물었는데, 응답가계의 34%가 그렇다고 답함으로써 2/3의 가계가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and Choi(2009)는 50세 이상의 은퇴자를 대상으로 은퇴자산 규모에 대해 객관적, 주관적 충분정도를 분석하였는데, 23.2%의 은퇴자만이 현재의 지출을 은퇴 후에도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5.7%가 본인의 은퇴자금이 은퇴 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충분할 것이라고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연구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준비된 은퇴자금을 산출한 객관적 은퇴자금준비정도는 25%대를 넘지 못하며, 은퇴자금준비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대한 질문에는 이보다 다소 높은 답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은퇴준비에 대한 주관적 인지와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를 함께 다룬다. 예비은퇴자를 대상으로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와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실제적 준비상황과 주관적인 평가, 그 사이의 간극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주관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은퇴자산이 '충분하다/아니다'의 이분법으로 질문하는 기존 연구(Yuh, Joung, & Moon, 2007)의 방식이 아닌 '은퇴준비정도'를 백분율로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에 비해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와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의 차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II. 기존 연구 고찰

은퇴자금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은퇴시기를 중심으로 은퇴용으로 준비된 자금의 크기와 은퇴이후의 소비수준을 비교하여 은퇴자산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진단하는 방법이 있고, 은퇴시점에 마련된 은퇴자금을 산출하고, 은퇴기간동안 지속가능한 인출비율을 계산해서 이의 적정성을 검토하거나 또는 부족한 저축률을 산출하거나 적정한 수익률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다.

Moore and Mitchell(2000)은 Health and Retirement Study(HRS) 자료를 사용하여 은퇴에 가까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향후 소비를 위해 필요한 자산과 축적 가능한 자산을 비교함으로써 은퇴자금의 충분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평생 동일한 소비성향을 가진다는 가정 하에, 추정된 저축률과 생애주기모형을 이용한 최적저축률을 비교함으로써 은퇴자산의 충분성을 평가하였다. 은퇴시점을 62세로 가정하였을 때 충분한 자산을 가진 가계는 31%밖에 해당되지 않았고, 65세로 은퇴연령을 가정하였을 경우 40% 가계가 충분한 은퇴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Yuh, Montalto, and Hanna(1998)는 1995년 SCF자료를 사용하여 비은퇴가계의 은퇴준비 적정성을 연구하였다. 과거자료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래수익률을 예측하여 각 가계의 자산에 적용시킴으로써 미래 자산 가치를 계산하였고, 소비함수 추정을 통해 은퇴소비를 추정하였다. 이를 기초로 은퇴시점을 기준으로 축적 가능한 총자산과 필요한 총소비를 비교함으로써 은퇴자산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약 52%의 가계가 충분한 은퇴자산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Hanna and Garman(2003)은 2001년 미국 Survey of Consumer Finance자료를 이용하여 예상은퇴시기까지 축적할 수 있는 은퇴준비자금과 은퇴 후 소비될 총 은퇴소비를 비교하여 은퇴자금의 충분성을 분석하였다. 51세에서 60세까지의 예비노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57%의 가계만이 충분한 은퇴자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은퇴준비자금의 적정성을 평가한 미국 연구 결과들은 절반 정도가 이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자산 적정성을 평가한 우리나라 연구들은 2001년 Moon and Yuh의 연구를 시작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다. Moon and Yuh(2001)는 통계청의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45-64세의 예비노인가계를 대상으로 필요한 은퇴자산의 양과 그에 따른 저축액을 추정하였다. 노후를 위한 요구저축액과 현재의 저축액을 비교한 결과 요구저축액 이상을 저축하고 있는 경우가 58%였으며, 예비노인가계의 42%가 노후를 필요한 은퇴자산 양만큼 준비하지 못하고 있음을

도출한 바 있다. 또한 Yuh(2005)는 중앙일보 ‘자산 리모델링 칼럼’에 실린 30~40대 재무설계사례 74개를 이용하여 은퇴 예상연령 60세, 세후 투자수익률 7%, 물가상승률 4%를 가정한 후 노후자금을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거주주택을 제외하였을 때 약 46%의 가계가 노후자금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Yuh and Kim(2007)은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예비노인가계의 은퇴자산 적정성을 연구하면서 시뮬레이션분석을 적용하였다. 이들은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수익률을 과거 수익률을 바탕으로 미래 수익률을 추정하여 은퇴시점의 자산규모를 추정하였고, 이를 은퇴이후 소비수준과 비교함으로써 은퇴자산의 적정성을 진단하였다. 그 결과 은퇴자산이 적정한 그룹과 부족한 그룹으로 크게 양극화 현상을 보일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Baek(2008)은 기존연구들과 달리 은퇴가계를 대상으로 은퇴후 소득 적정성과 지속성을 연구하였다. 2006년 고령화 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은퇴자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소득적정성으로 은퇴직전 월평균 총소득에 대한 현재 월평균 총소득의 비율을 사용하였고, 소득지속성으로는 은퇴직전 월평균소득을 기대여명까지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산출하였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모두 은퇴자금으로 활용한다는 전제하에 총자산을 모두 활용할 경우 은퇴직전 소득을 기준으로 기대여명까지 소득이 지속될 수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총자산은 거주주택을 포함하였고 부채를 제외하여 순자산규모를 산출하였으며, 기대여명은 통계청의 생명표를 활용하였고, 물가상승률은 과거 5년간 물가상승률의 평균치를, 투자수익률은 과거 5년간 CD금리 평균치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소득지속성을 가진 은퇴자는 18.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Baek(2008)의 연구와 유사하게 Lee and Choi(2009)도 은퇴자를 대상으로 은퇴자금의 충분성을 다루었다. 이들은 2007년 한국투자자교육재단이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은퇴자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은퇴자산의 산출을 위하여 금융자산과 연금일시금을 합산하였고, 부동산자산을 포함하고, 부채를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필요소비는 현재소비규모를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물가상승률 자산수익률은 Baek(2008)의 연구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23.2%의 은퇴자들이 은퇴자산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주택까지는 은퇴자산으로 포함하는 경우 36.1%가 현재소비수준을 사망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aek의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냈는데, Baek의 연구가 은퇴직전소득규모를 은퇴소비수준으로 적용한 반면, Lee and Choi(2009)는 현재의 은퇴상태에서의 소비수준을 적용한데 따른 차이로 추측된다. Lee and Choi(2009)는 은퇴자금의 충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는데, 성별, 연령, 건강만족도, 은퇴대비용부, 자가보유여부, 연금수급여부, 보험가입여부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자대상 연구의 경우 이미 은퇴하였기 때문에 은퇴시점에 실제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은퇴소비 또한 은퇴시점에서의 소비액이나 또는 은퇴직전의 소비액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의 연구들이 은퇴필요액과 은퇴자산간의 비교를 통하여 충분성 여부를 다루었다면, Choi et al.(2009)은 은퇴자산의 은퇴필요액에 대한 비율을 계산함으로써 은퇴자금충분도를 계산하였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예상되는 퇴직금을 현재 가치화하여 은퇴자산에 포함하였으며, 현재 저축과 소득을 이용하여 은퇴시점의 저축총액과 소득총액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그 결과 은퇴자금충분도는 중위수로 산출하였을 때 0.60이었고, 평균치로 산출하면 0.75로 나타났다.

유사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은퇴자금의 충분성 평가기준에 있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질 만한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이슈로 거주 주택을 은퇴자금으로 볼 것인지 제외시킬 것인지의 여부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연구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거주주택을 제외하는 등의 임의적인 가정을 세우지 않고 응답자 각자가 은퇴용 자산으로 생각하는 금융 자산 및 부동산 자산의 현가를 모두 합산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금융 자산과 부동산 자산의 증가율이 다를 수 있으나 예측하기 힘들고 그 자산을 임의적으로 제외 또는 포함시키는 것의 개인차가 존재하므로, 예비 은퇴자 본인이 은퇴용 자산으로의 가치를 추산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였고, 자산수익률을 동일한 값으로 적용하였다.

생활비를 은퇴전 생활비의 몇 %로 할 것인지의 소득대체율을 정하는 것은 은퇴자금준비도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소득대체율이 아닌 응답자가 예상한 은퇴생활비를 적도록 하여 이러한 대체율의 가정이 필요 없도록 한다. 또한 은퇴에 대한 결정은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예상하는 은퇴 시점과 자산 가운데 은퇴용으로 생각하는 금액 등 모든 요인들을 가정이 아닌 개개인의 예상 데이터로 추산할 것이다.

일부 연구들은 은퇴준비가 충분한지 아닌지의 여부를 본인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는 개인의 자각정도에 따라 은퇴를 위한 재정적 준비와 그에 따른 실행여부 및 방법 등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Joo & Pauwels, 2002). Park(2008)은 2007년 사회통계조사자료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노후준비 여부를 분석하였다. 가구주가 45세 이상 59세까지인 가계 중 74.4%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노후준비여부에 대한 로짓 분석 결과 남성가구주, 높은 교육수준, 결혼상태, 경제활동, 현재소득인식, 주택소유, 거주 지역, 전반적 생활여건 등이 노후준비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에서 50대까지의 중산층을 조사대상으로 한 Yuh and Kim(2007)의 연구에 의하면 34%가 주관적으로 은퇴준비가 충분하다고 답하고 있으며, 은퇴준비에 대한 충분성은 가구주 연령, 부채유무, 소득수준, 부동산자산, 예상은퇴연령, 개인적 은퇴준비 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and Choi(2009)의 연구는 2007년 투자자조사를 이용해서 은퇴자금의 충분성을 분석한 결과 25.7%만이 충분하다고 나타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Yuh and Kim(2007)에 비해 다소 낮은 값을 보였으며, 영향요인을 분석한 로짓 분석 결과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가구주성별, 연령, 학력, 은퇴대비 여부, 자가보유여부, 가계수입, 가구원 수 등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들에서 은퇴자금의 주관적 충분도에 대한 조사는 <충분하다/ 불충분하다>의 이분법을 사용하여 측정함으로써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은퇴준비의 정도를 알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주관적 은퇴충분도에 대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도 언급된 바 있다(Yuh & Kim, 2007).

은퇴준비가 부족하다는 결과들은 주택구입이나 자녀교육이라는 재무목표로 인하여 은퇴준비에 비교적 소홀했던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나(Yuh & Kim, 2007) 은퇴자금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하지 않고 준비해왔던 관행 역시 그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다(Ryu, Lee, & Kim, 2009). 특히 공적연금이 얼마나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은퇴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Jeon, Kang, & Lim, 2009). 실제로 스스로가 공적연금으로 미래에 얼마를 수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드물며,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현재에는 직장 및 연봉의 변동에 따라 공적연금의 수령액이 정확히 얼마일 것인지 아는 것은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은퇴준비자금을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분류하여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현재 납입하고 있는 노후준비금액을 모두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노후를 위한 월 준비금액으로 노후준비자금을 계산하여 객관적인 노후준비자금으로 계산할 것이다.

즉 예비은퇴자들의 예상하는 상속자산, 현재 소유한 은퇴용 금융 및 부동산 자산 및 매월 적립하고 있는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등 모든 은퇴준비금액을 은퇴예상시점까지 계산한다. 다음으로 예상 사망여명까지 필요하다고 응답한 생활비의 미래 값을 준비한 은퇴준비자금에서 매년 인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예상 수익률로 계산하는 것을 반복하여 생활비의 총액을 산출한다. 이렇게 계산된 은퇴필요자금 대비 은퇴준비자금의 비율과 직관적으로 응답한 주관적 준비도와와의 비교를 통해 개인들의 은퇴자금준비도에 대한 정확한 자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III.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 수준은 어떠한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 수준은 어떠한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3>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와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의 일치정도는 어떠한가?

2. 분석자료

본 연구는 65세 이하의 예비은퇴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오프라인으로 72명을 편의표집 하였고, 리서치 기관의 표본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353명을 조사하여 총 425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중 소득과 은퇴자산 자료가 부족한 3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2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온라인 서베이는 전국 인구비례할당제에 의한 표본을 토대로 무작위 추출법을 사용하되, 연령대가 골고루 분포하도록 조사하였다. 은퇴를 다룬 본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혼인 경우만을 응답자에 포함하였다.

3. 변수 정의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와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 그리고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를 계산하기 위한 노후준비자금 및 노후필요자금의 의미를 <Table 1>과 같이 정의하였다.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는 설문지를 통하여 '스스로가 자각한 은퇴준비정도로 100%를 완전히 충분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준비된 정도의 주관적 비율' 값이다. Yuh, Joung, and Moon(2007), Lee and Choi(2009) 등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를 다룬 연구들에서는 은퇴자금의 주관적 충분도에 대한 조사에서 <충분하다/ 불충분하다>의 이분법을 사용하여 측정함으로써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은퇴준비의 정도를 알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Yuh & Kim, 2007; Jung & Yang,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의 은퇴준비자금이 추후 필요한 은퇴자금의 얼마나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를 백분율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즉 은퇴준비가 충분한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충분한

Table 1. Definitions of Main Variables

Variables	Definitions
Subjective retirement wealth adequacy	the level of how much he thinks he prepared for the living expenses after retirement, assumed that 100% means perfect readiness during the entire retirement period.
Objective retirement wealth adequacy	Retirement Fund / Retirement Fund Needed × 100
Retirement wealth prepared	money value of the fund (monetary and real estate assets) prepared for living expense after retirement at the point of retirement
Retirement wealth needed	money value of the fund needed for living expense for the entire life after retirement at the point of retirement

지를 알 수 있다면 은퇴준비가 얼마나 되어있는가의 여부뿐 아니라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가 객관적으로 얼마나 일치하는지의 여부까지 분석할 수 있다.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는 Moon and Yuh(2001), Yuh and Kim(2007), Lee and Choi(2009), Choi et al.(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은퇴자금 충분도와 같은 의미이나,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를 함께 다룬 본 연구에서는 용어의 구분을 위하여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노후준비자금의 계산은 Yuh and Kim(2007), Lee and Choi(2009), Choi et al.(2009)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은퇴시점에 준비된 은퇴자산과 기본적으로 같은 아이디어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모든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이 은퇴시점까지 남아있다고 가정하지 않고, 응답자들에게 은퇴용으로 준비하고 있는 자산의 현재 가치를 질문하여 은퇴용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만을 추출하였다. 따라서 은퇴용으로 생각하는 자산을 은퇴 전까지 유지하여 일정한 수익률로 투자한다는 가정으로 계산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노후준비자금의 산출에서 종종 논의되는 문제는 부동산자산을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한 문제이다.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을 모두 노후준비자금으로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최근까지 투자 방법으로 부동산이 선호되어 온 것을 감안한다면 부동산을 단순히 거주지로 여겨 노후자금의 준비에서 제외하는 것 또한 오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포괄하고자 설문지에 은퇴준비용 자산을 단순히 현금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형태의 자산일 경우 그 자산의 현재 가치를 합산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토지 등의 부동산자산의 경우 향후 기대되는 상속자산의 현재가치를 합산하도록 하였다. 물론 그 자산의 가치가 현금자산처럼 이자율로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다른 형태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를 임의로 가정하지 않고 응답자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즉 노후 대비로 이미 모아둔 금액이 있다거나 또는 다른 자산의 형태로 가지고 있다면 그 자산의 현재가치를 이자율

에 따라 은퇴준비기간 동안 그 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또한 매달 일정금액을 적립한다면 적립액을 연단위로 환산하여, 각 금액의 은퇴시점까지의 연복리로 투자된 금액을 모두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목돈 및 적립액에 대한 노후준비자금의 계산이 가능하다.

노후필요자금은 Yuh and Kim(2007)의 총은퇴소비, Lee and Choi(2009)의 총소비액수, Choi et al.(2009)의 은퇴필요자금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은퇴시점까지 노후자금을 모아놓은 후 이 목돈을 정해진 이자율로 투자하면서 매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노후생활비를 인출하여 남은 잔액을 다시 투자하는 방법으로 노후필요자금을 산출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계산방법을 사용할 경우 은퇴이후의 이자율과 인플레이션 및 평균수명에 대하여 가정을 세우고 계산하였다.

이러한 주요 변수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주요변수 값의 산출'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4. 주요변수 값의 산출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변수로 노후준비자금과 노후필요자금을 이용한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를 산출하고자 한다. 노후준비자금은 현재의 노후준비 금액을 바탕으로 은퇴시점에 준비될 금액을 예상하는 것이며, 노후필요자금은 실제로 은퇴기간동안 필요한 모든 자금을 더하여 추산한 자금이다. 각각의 계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를 추산할 수 있다.

1) 노후준비자금

먼저 노후준비자금의 계산은 목돈을 거치하는 방법과 매월 적립하는 형태의 두 가지를 분류하여 그 값을 추정하였다. 은퇴준비를 적립금으로 하는 경우에는 매월 적립금을 1년 치로 환산하여 연복리로 수익을 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FV_{total} = FV_{inv} + FV_{sav} \tag{1}$$

$$FV_{inv} = PV_{inv} (1+r_{cd})^{t_{work}} \tag{2}$$

$$FV_{sav} = \sum_{i=1}^{t_{work}} SV_{Mon} \times 12 \times (1+r_{cd})^i \tag{3}$$

- FV_{total} : 은퇴시점의 노후준비금 총액
- FV_{inv} : 현재 목돈을 예정이자율로 투자하여 형성될 은퇴시점의 노후준비금
- FV_{sav} : 매월 저축을 예정이자율로 투자하여 형성될 은퇴시점의 노후준비금
- PV_{inv} : 현재 노후준비용 목돈액
- SV_{mon} : 노후준비용 월 적립금액
- r_{cd} : 예정이자율
- t_{work} : 은퇴준비기간 (예정은퇴나이-현재나이)

2) 노후필요자금

다음으로 노후필요자금의 계산은 은퇴시점부터 사망시점까지 본인이 예상하는 은퇴생활비로 생활한다고 가정하여 추산한다. 특히 예상하는 은퇴생활비는 현재시점의 금액으로 은퇴 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은퇴생활비를 모두 계산한 후 이를 은퇴시점을 기준으로 현재화한 총합을 예상되는 노후필요자금으로 가정하였다.

예상되는 미래의 은퇴생활비는 현재시점의 금액을 응답자의 예상 은퇴 연령부터 시작하여 은퇴생활비를 1년 단위로 계산하였으며 그 수식은 다음과 같다.

$$FV_{ret} = PV_{ret} (1+r_{market})^t \tag{4}$$

- FV_{ret} : 예상되는 미래의 은퇴생활비
- PV_{ret} : 예상 은퇴생활비의 현재 가치
- r_{market} : 물가상승률
- t : 현재부터 은퇴시점까지의 기간(연단위)

위와 같이 계산된 예상되는 미래의 은퇴생활비를 은퇴시점을 중심으로 현재화하여 그 합을 구할 수 있다. 이때 현재는 은퇴이후의 목돈을 투자할 예정이자율로 산출할 수 있으므로 은퇴시점을 현재로 가정한 Net Present Value(NPV) 함수로 계산하였으며, 그 수식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NPV_{ret} = \sum_{i=1}^{T_{ret}} \frac{(FV_{ret})_i}{(1+r_{cd})^i} \tag{5}$$

- NPV_{ret} : 은퇴생활비의 은퇴시점에서의 총액
- T_{ret} : 노후생활기간(예상사망나이-예상은퇴나이)
- r_{cd} : 예정이자율
- FV_{ret} : 미래 예상되는 은퇴생활비

은퇴시점에 준비된 목돈을 가정한 이자율로 매년 투자하면서 필요한 물가상승률에 의해 계산된 은퇴생활비를 매년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즉 미래 은퇴생활비는 물가상승률로 추정된 값이지만 대신 은퇴생활비의 총금액은 미래 수익률을 이용하여 추산되었다.

3)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

위에서 계산된 노후준비자금을 노후필요자금으로 나눈 것이 바로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Yuh and Kim(2007)과 Lee and Choi(2009) 및 Choi et al.(2009)의 연구에서 은퇴자금 충분도를 계산하는 방법과 같다.

$$R_{cal} = \frac{FV_{total}}{NPV_{ret}} \tag{6}$$

- R_{cal} :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
- FV_{total} : 은퇴시점의 은퇴준비금 총액
- NPV_{ret} : 은퇴시점에서 필요한 은퇴생활비의 총액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출된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 값과 응답받은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 두 값을 비교 분석하였다.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가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에 비해 높은 경우,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은퇴준비를 하는 보수적 은퇴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가 더 높은 경우에는 자신의 은퇴준비에 대하여 실제보다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자료 분석

노후준비자금의 계산에 필요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현재 나이와 예상하는 은퇴나이를 중심으로 은퇴준비기간을 계산하고, 은퇴나이를 중심으로 사망시점을 평균 수명의 증가를 고려하여 90세로 가정하고, 은퇴기간을 계산하였다.

은퇴준비기간 및 은퇴 후의 기간 동안 적립금액과 목돈금액에 대해서는 은퇴 전까지 같은 금액을 계속 적립하고 은퇴용 자산을 인출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은퇴준비금액을 추정하였다. 특히 이자율은 최근 3년 평균금리가 2.75%, 최근 10년이 3.85%로 약 3~4% 내외로 기준금리가 변동하므로, 일부 자산을 적극적으로 투자한 세후 실제 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기준금리에 1%를 더한 4%의 수익률을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다음으로 은퇴 후 예상생활비를 물가상승률로 계산하여 은퇴시점부터 매년마다 예상생활비 의 미래금액을 계산한다. 이러한 물가상승률은 최근 10년(2000~2010)간의 평균물가상승률 3.09%를 근거로 3%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으로

Microsoft Excel 7.0의 재무함수를 이용하여 응답자 각각의 은퇴시점에 필요한 '은퇴생활비의 총액'과 '은퇴준비금액'을 계산하여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를 산출할 수 있다. 응답자 422명 모두의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Microsoft Excel 7.0의 재무함수식을 C 언어를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구현하여 계산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20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조사대상에 대한 특성,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와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에 대한 평균값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가구특성에 따른 은퇴자금준비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과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은퇴자금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는데, 선행연구의 분석모델에서 다루었던 사회 인구학적 특성변수 외 소비성향, 예상은

퇴연령, 예상은퇴생활비, 은퇴자산, 은퇴저축을 포함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VIF (분산팽창계수)를 확인한 결과 10이하를 나타내었다.

6.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 422명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연령 대로는 30대와 40대가 43.3%와 31.5%씩, 50대 이상이 2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대학교 졸업이상이 81.8%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가계 소득대별 빈도를 보면 월평균 300만원 미만인 집단이 21.8%를 차지했고, 300만원~400만원 미만의 집단이 가장 많은 23.5%였다. 본 조사대상자의 경우 월평균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라고 답한 경우도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N=422

Variables		Frequency (%)
Age	< 30's	183 (43.3)
	40's	133 (31.5)
	50's≥	106 (25.1)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or less	77 (18.2)
	college graduate	273 (64.7)
	graduate or over	72 (17.1)
Income	< 3,000,000	91 (21.8)
	< 4,000,000	99 (23.5)
	< 5,000,000	82 (19.4)
	< 6,000,000	63 (14.9)
	6,000,000≥	86 (20.4)
Average Propensity on Consumption	< 50%	44 (10.4)
	< 65%	78 (18.5)
	< 80%	77 (18.2)
	< 90%	80 (19.0)
	< 100%	67 (15.9)
Occupation	100%≥	76 (18.0)
	laborer	279 (66.1)
Housing tenure	non-laborer	143 (33.9)
	Owner	294 (69.7)
	Nonowner	128 (30.3)
mean	Income	4,486,000 won
	Average Propensity on Consumption	74.2%
	expected retirement age	59.6 yrs.
	expected retirement living expense	2,100,000 won
	Retirement Asset	139,022,000 won
	(only having the asset=165)	(355,559,000 won)
	Retirement saving	365,000 won
	(only having the saving=178)	(865,000 won)
	Subjective retirement wealth adequacy	40.9%

20.4%였다. 소득 50%미만을 지출한다는 가계의 비율이 10.4% 인데 반해, 90% 이상을 지출한다는 가계가 33.9%로 1/3이 넘었다.

평균값으로 보면 조사대상가계의 월평균소득은 449만원으로 2010년 통계청이 조사한 우리나라 도시가계조사의 평균치인 336.6만원에 비해 110만 원가량이 높았고, 평균소비성향은 평균 74.2%였다. 조사대상자들은 예상은퇴나이로 평균 59.6세라고 답하여, 실제 평균은퇴나이인 54.6세(서울시복지재단, 2012)보다 다소 높게 예측하고 있었다. 은퇴이후 필요한 생활비는 현재 가치로 평균 210만원이 필요하다고 답하여, 현재의 월 지출액인 332.3만원의 62.9%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이는 Yang and Jung(2010)의 재무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제시한 적정은퇴생활비 280만원과 차이를 보이는 값이다. 또한 35-59세의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 실태조사'와 비교하면 은퇴예상연령 평균 62.2세와 적정 노년생활비용 245.1만원(서울시복지재단, 2008)으로 본 조사대상자는 은퇴 시기는 좀 더 빠르게 은퇴 후 예상 생활비는 좀 더 적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집단의 예상되는 은퇴용 자산의 평균값은 현재가치로 약 1억 3,902만원이었고, 현재 은퇴용 자산이 있다고 응답한 169명만의 평균은 3억 5,556 만원이었다. 매달 은퇴대비 저축금액은 평균 36만5천원이라고 답하였고, 실제로 저축을 하고 있는 178명 응답자들의 평균액은 86만5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는 현재의 노후준비

금액이 실제 노후에 필요한 금액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응답자가 퍼센트로 답한 것으로 평균값이 40.9%로 나타났다.

IV.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은퇴자금준비도 분포

<Table 3>은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와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는 평균 37.6으로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 40.9에 비해 낮게 나타나, 응답자들이 은퇴준비정도를 전반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객관적 은퇴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44.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는 5.9%만이 준비정도가 0이라고 답하였다.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가 50%이하인 가계가 80.6%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주관적 평가로는 73.0%가 은퇴자금준비도가 50%이하라고 답하여, 은퇴자금준비도가 높아감에 따라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와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의 분포가 유사해져 감을 알 수 있다.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도 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으로 은퇴준비가 다 되었다고 평가하는 경우도 4.3%였다.

Table 3. Distribution of Objective Retirement Wealth Adequacy and Subjective Retirement Wealth Adequacy

	Objective retirement wealth adequacy		Subjective retirement wealth adequacy	
	37.6 (8817.8)		40.9 (2715.3)	
	%	Cumulative%	%	Cumulative%
0%	44.8	44.8	5.9	5.9
~10%	9.7	54.5	15.4	21.3
~20%	10.4	64.9	11.6	32.9
~30%	6.9	71.8	14.2	47.1
~40%	3.1	74.9	6.2	53.3
~50%	5.7	80.6	19.7	73.0
~60%	4.0	84.6	6.4	79.4
~70%	3.8	88.4	6.9	86.3
~80%	0.7	89.1	7.3	93.6
~90%	0.7	89.8	2.1	95.7
~100%	0.7	90.3	4.3	100.0
100%~	9.7	100.0		

2.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은퇴자금 관련지표 및 준비도 비교

응답자를 연령대별/ 소득대별/ 평균소비성향별로 은퇴자금준비도에 관련한 값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노후준비액과 노후필요액의 계산을 위한 물가상승률과 이자율은 Choi et al.(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가정인 지난 5년간의 물가상승률 2.9%(2003~2007)와 지난 5년간 평균 정기예금 금리 4.4%와 수신금리 3.5%를 고려하여 물가상승률을 3%, 이자율을 4%로 각각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은퇴기간을 계산하기 위한 사망연령은 제 6차 경험생명표의 남성 79세, 여성 82세를 중심으로 기대여명이 증가한다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90세로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1) 연령대별 비교

<Table 4-1>과 <Table 4-2>는 연령대별로 노후준비자금, 노후필요자금 및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와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 값을 나타낸다. ANOVA 분석 결과 노후준비자금 외의 다른 모든 값들이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관련된 변수에 대해 연령대별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소득은 40대 가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퇴용자산은 50대 가구가 가장 높았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예상은퇴연령은 높아져서 50대 이상의 경우 평균 62.6세로 답하였다. 은퇴 후 예상생활비의 경우 현재의 생활비 수준이

반영되어 4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후준비자금의 경우 20대의 경우 평균 2억 5,991만원이라 답하였고,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준비자금 또한 많아져서 50대의 경우 3억 7,500만원이라 답하였다. 하지만 40대와 50대의 노후준비자금이 차이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중년기가 계에서 자녀교육비 지출 등에 따른 지출 부담이 노후준비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노후필요자금의 경우 나이가 적은 경우 은퇴시점까지 기간이 나이가 많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길어서 물가상승률에 따른 차이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판단되며, 50대의 경우 은퇴에 가까워짐으로써 보다 적은 노후생계비를 필요로 하고, 또한 예상은퇴연령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가 될 것으로 응답함으로써 40대와 큰 격차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는 30대 이하의 경우 20.4%에 불과한 반면, 은퇴가 가까운 50대는 48.4%였다. 나이가 많을수록 은퇴시점이 가깝기 때문에 더 많이 준비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 역시 연령에 따라 증가하였다. 50대의 경우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와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가 48%대로 유사하여 은퇴자금준비도에 대해 좀 더 정확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주관적 모두 은퇴자금준비도는 50%를 밑도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젊은 층일수록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와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 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아, 젊을수록 은퇴준비상태에 대해 과대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Table 4-1. Economic Variables by Age Groups

Age	Income (won)	Average Propensity of Consumption(%)	Expected Retirement Age	Retirement Living Expense(won)	Retirement Asset (won)	Retirement Savings (won)
30's	3,828,853 b	72.2	57.9a	1,977,596a	64,247,946 a	328,818
40's	5,087,519 c	76.7	59.5a	2,418,045 b	15,756,2500 ab	389,754
50's or more	4,866,038 bc	74.4	62.6 b	1,911,321a	276,403,883 b	541,827
F-ratio	7.36**	1.25	14.43**	7.18**	2.55	1.03

**p < .01

Table 4-2. Retirement Variables by Age Groups

Age	Retirement wealth prepared (won)	Retirement wealth needed (won)	Objective retirement wealth adequacy (%)	Subjective retirement wealth adequacy (%)
30's	259,906,004	1,368,959,203 c	20.4a	32.5a
40's	361,542,555	1,207,046,946 b	31.5ab	46.3 b
50's or more	374,866,344	709,077,147a	48.4 b	48.5 b
F-ratio	0.95	30.7**	3.91**	11.41**

**p < .01

2) 소득대별 비교

<Table 5>는 가계소득대별로 노후준비자금, 노후필요자금 및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와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 값을 나타낸다. ANOVA 분석 결과 노후준비자금, 노후필요자금,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 및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 모든 값에서 소득대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소득이 많을수록 노후준비자금이 더 많이 축적될 가능성이 커서, 월 소득 300만원 미만인 가계의 경우 1억, 600만원 이상인 가계는 6억 이상으로 두 집단 간에 격차를 보였다. 반면 노후필요자금은 노후준비자금 만큼의 큰 격차를 보이지는 않았다. 월 소득 300만원 미만인 가계가 9억 6천만 원인 반면, 월 소득 600만 원 이상인 가계는 14억 4천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후필요자금의 경우 응답자가 노후생활비로 응답한 값에 근거하였기 때문으로 상대적으로 현재 월 소득이 적은 가계가 필요한 노후생활비 또한 적은 규모로 응답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소득이 많을수록 저축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를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 역시 소득이 높을수록 더 준비되어 있었다.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와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와 의 값을

비교해보면 500만 원 이상의 소득에서는 두 값의 차이가 5% 이내로 적은 편이나, 500만 원 이하의 소득에서는 은퇴자금준비도의 차이가 10% 이상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득이 적은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보다 자신의 은퇴자금준비도를 과대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계의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는 48.8%로 노후필요자금의 절반가량을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 역시 유사하게 51.9%라 답해 이들 고소득집단의 경우 비교적 노후준비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소득이 적을수록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와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 간의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월 소득이 300만원인 가계의 경우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가 12.5%로 상당히 부족함을 나타내었으며, 이들의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는 29.6%라고 답함으로써 자신의 은퇴준비상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

3) 평균소비성향별 비교

<Table 6>은 평균소비성향에 따른 노후준비자금, 노후필요자금 및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와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

Table 5. Retirement Variables by Income Groups

Income (won)	Retirement wealth prepared	Retirement wealth needed	Objective retirement wealth adequacy	Subjective retirement wealth adequacy
< 3,000,000	100,833,501 a	964,632,292 a	12.5% a	29.6% a
< 4,000,000	205,236,279 a	952,734,148 a	26.2% ab	37.1% ab
< 5,000,000	260,765,776 a	1,231,420,647 b	27.3% ab	40.2% b
< 6,000,000	500,469,430 b	1,207,335,771 b	45.6% b	49.0% c
6,000,000 ≤	614,841,274 b	1,443,338,731 c	48.8% b	51.9% c
F-ratio	8.13**	10.79**	3.92**	10.25**

**p < .01

Table 6. Retirement Variables by Average Propensity of Consumption Groups

Average Propensity of Consumption	Retirement wealth prepared	Retirement wealth needed	Objective retirement wealth adequacy	Subjective retirement wealth adequacy
< 50%	445,251,030 b	1,277,230,523	51.9% c	45.5% b
< 65%	507,248,933 b	1,271,495,008	40.0% bc	45.6% b
< 80%	403,313,949 b	1,058,669,612	43.8% abc	42.0% b
< 90%	298,002,660 ab	1,119,003,479	22.4% ab	44.8% b
90% ≤	151,732,070 a	1,120,931,834	17.1% a	33.5% a
F-ratio	4.08**	1.74	3.67**	4.06**

**p < .01

값을 나타낸 것이다. ANOVA 분석 결과 노후필요자금을 제외한 노후준비자금,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 및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에서 평균소비성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평균소비성향이 소득의 50%미만인 가계의 경우 4억 4천 5백만 원의 노후준비자금이 마련될 예정인 반면, 소득의 90%이상을 지출하는 가계는 1억 5천만 원의 노후준비자금을 마련할 예정으로 두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는 평균소비성향이 90%이상인 그룹이 34%로 예상하여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와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은퇴자금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와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종속변수로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와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로 독립변수로 나이와 가계 총소득, 평균소비성향, 예상은퇴나이, 은퇴용 자산액, 은퇴용 적립액 및 예상은퇴생활비를 넣어 분석하였다.

1)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를 종속변수로 한 선형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7>과 같이 나타난다.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 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3%의 물가상승률, 4% 이자율, 예상사

망시점 90세로 가정한 계산 값으로 분석하였다. 선형회귀분석결과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는 가계총소득, 예상은퇴나이 및 예상은퇴생활비, 은퇴용 자산액과 적립액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가계 총소득과 은퇴용 자산액 및 은퇴용 적립액은 높을수록, 예상은퇴생활비는 낮을수록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가 높아진다. 나이와 직업, 교육정도 및 주택의 소유여부는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가구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보다는 경제적 요인이 은퇴자금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은퇴를 위한 경제적 준비는 개인의 선호에 의한 선택보다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중요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2)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를 종속변수로 한 선형회귀분석결과는 <Table 8>에서 볼 수 있다. 나이가 많을수록, 가계총소득과 은퇴용 자산액이 높을수록, 평균소비성향이 낮을수록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교육정도나 직업, 주택소유여부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예상은퇴나이나 예상은퇴생활비 및 은퇴용 적립액 역시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로 노후준비금액은 은퇴시점과 은퇴이후의 생활비가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와는 통

Table 7. Regression Results on Objective Retirement Wealth Adequacy

independent variables	B	β
age	-0.528	-0.055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or less=1) (graduate or more=1)	-0.515 -1.274	-0.002 -0.005
occupation (nonlaborer=1)	-0.653	-0.004
housing tenure (nonowner=1)	-12.524	-0.065
total income	7.125E-06**	0.240**
average consumption propensity	-0.279	-0.066
expected retirement age	2.555**	0.173**
expected retirement living expense	-1.57E-05**	-0.184**
retirement asset	6.650E-08**	0.525**
retirement savings	1.927E-05**	0.310**
R ² -ratio	0.571	
Adjusted R ² -ratio	0.560	

*p < .05, **p < .01

Table 8. Regression Results on Subjective Retirement Wealth Adequacy

Independent variables	B	β	B	β
age	0.683**	0.233**	0.719**	0.245**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or less=1) (graduate or more=1)	-6.732	-0.096	-6.697	-0.095
occupation (non-laborer=1)	-2.228	-0.039	-2.184	-0.020
housing tenure (nonowner=1)	-4.105	-0.070	-3.257	-0.055
total income	1.249E-06*	0.137*	7.669E-07	0.084
average consumption propensity	-0.157**	-0.120**	-0.138*	-0.106*
expected retirement age	-0.036	-0.008	-0.209	-0.046
expected retirement living expense	4.989E-07	0.019	1.559E-06	0.059
retirement asset	7.974E-09**	0.172**	2.618E-09	0.056
retirement savings	1.089E-06	0.048	-4.56E-07	-0.020
objective retirement wealth adequacy			0.068**	0.220**
R ² -ratio		0.214		0.235
Adjusted R ² -ratio		0.193		0.213

*p < .05, **p < .01

Table 9. Sufficiencies of Adequacies of Subjective Retirement Wealth Adequacy and Objective Retirement Wealth Adequacy

		Subjective retirement wealth adequacy		
		< 100%	100% ≥	Total
Objective retirement wealth adequacy	< 100%	373(88.4%)	8 (1.9%)	381 (90.3%)
	100% ≥	31 (7.3%)	10 (2.4%)	41 (9.7%)
	Total	404(95.7%)	18 (4.3%)	422(100.0%)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점으로 보아, 사람들은 자산과 가계소득 및 평균소비성향과 같은 현재 현금흐름과 자산상태로 은퇴자금준비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은퇴자금준비도는 현재 상태 뿐 아니라 은퇴 시점 및 은퇴 이후의 생활비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교육을 통해 은퇴준비에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두 가지 모두 <가계총소득>과 <은퇴용 자산액>이 주관적 및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와 양의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에 주는 영향력으로는 나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에는 은퇴용 자산액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나이의 경우 많을수록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음

므로 비록 어린 나이라도 높은 적립액 및 낮은 평균소비성향 등을 유지한다면 좀 더 충분한 은퇴준비가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와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의 비교

<Table 9>는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와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의 충분성 일치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은퇴자금준비도가 100% 이상인 경우 충분하다고 보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의 경우 필요 은퇴준비액과 비교한 것이므로 100%를 상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100%이상인 경우를 충분집단으로 포함하였다.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가 100%라고 응답한 경우는 18명

Table 10. Comparing between Subjective and Objective Retirement Wealth Adequacy

	Frequency(%)
(1) Subjective retirement wealth adequacy > Objective retirement wealth adequacy	314 (74.4%)
(2) Subjective retirement wealth adequacy ≤ Objective retirement wealth adequacy	108 (25.6%)
Total	422

으로 4.3%에 불과하였다. 이는 예비은퇴자들의 경우 대부분 은퇴준비를 위한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므로, 아직까지 은퇴준비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가 충분한 경우는 41명으로 9.7%였다.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가 충분한 경우가 주관적으로 은퇴준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에 비해 높았다. 이는 본 연구가 젊은 예비은퇴자들을 포함함으로써 주관적 은퇴충분성을 막연하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추측해 볼 수 있다.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은퇴준비가 충분한 경우는 10명으로 2.4%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관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 은퇴준비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는 8명으로 1.9%였다. 이들은 은퇴준비에 대한 낙관성 때문에 부가적인 은퇴준비를 하지 않을 집단으로 재무교육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만, 예상외로 적은 수치였다. 반면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가 충분함에도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7.3%로 상대적으로 더 많았는데, 예상외로 은퇴준비에 대한 비관적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시사 하는 부분이다. 은퇴자만을 대상으로 한 Lee and Choi (2009) 연구 결과를 보면 은퇴자금 평가에서 객관적으로 충분한 경우가 23.6%, 주관적으로는 25.7%로 나타나, 예비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에 비해 은퇴자금준비도가 높았다. 이는 연구방법의 차이에서도 일부 비롯되어지는데, Lee and Choi(2009)의 연구는 이미 은퇴한 가계의 현재소비액을 기준으로 객관적 충분정도를 계산하고 있음으로써, 노후생활비를 적도록 한 본 연구에 비해 노후생활비가 적게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주관적 충분성 평가 또한 이들 연구는 <충분하다/충분하지 않다>라는 이분법을 사용함으로써 충분성 정도를 퍼센트로 나타내게 했고, 100%인 경우를 충분하다고 분류한 본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분성의 기준이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와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 간의 상관관계는 0.344로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와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10>과 같이 나타난다. 주관적 은퇴만족도가 객관적 만족도보다 큰 경우가 74% 이상으로 이는 실제 준비된 은퇴금액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으로 이러

한 경향으로 인해 은퇴준비를 늦추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예비은퇴자들이 은퇴자금 준비를 얼마나 했는가’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측정해보고자 하였다. 본인의 은퇴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한다면 앞으로 은퇴준비를 유발시키는 동기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관적 은퇴준비 충분도에 대한 연구는 은퇴재무교육의 효과와 함께 중요하다고 알려져 왔다(Joo & Pauwels, 2002; Kim, Kwon, & Anderson, 2005). 특히 본 연구에서는 예비은퇴자의 대상을 은퇴 전의 기혼자들로 정의하여 30대미만~40대까지의 비율이 75%로 좀 더 일찍 은퇴준비를 유도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되고자 의도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은퇴재무 프로그램은 이미 퇴직한 은퇴자를 대상으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비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김미혜, 2010). 또한 은퇴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금액 및 그 준비자금에 대한 계산이 힘들어 본인의 은퇴자산 준비정도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따라서 예비은퇴자의 적정한 은퇴준비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가상승률 및 이자율 등 은퇴준비계산에 들어가는 많은 가정들을 표준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절실하다.

연령대별/소득대별/평균소비성향별로 노후준비자금, 노후필요자금,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 및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를 비교한 결과, 연령대가 높을수록, 월 소득이 많을수록, 평균소비성향이 낮을수록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와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와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변량 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높은 연령, 가계총소득, 높은 은퇴용 자산액과 낮은 평균소비성향이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를 높이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는 높은 가계총소득, 높은 예상은퇴나이와 낮은 예상은퇴생활비, 높은 은퇴용 자산액과 은퇴용 적립액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공통적으로 가계총소득과 은퇴용 자산액이 주관적 은퇴

자금준비도와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예비 은퇴자들은 객관적 은퇴만족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예상은퇴나이나 예상은퇴생활비 및 현재 은퇴용 적립액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와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의 상관관계는 0.344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그 상관성이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는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는 현재 나이에 따라 은퇴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서로 다르며, 특히 은퇴시점 및 은퇴이후의 생활비 등 은퇴이후에 대한 생각이 잘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낮은 상관관계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특히 각각의 은퇴자금준비도가 충분(100%이상)하다와 불충분(100%미만)하다로 분류한 결과를 보면, 예비은퇴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90%이상이 불충분하다고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은퇴자금준비도를 0~100%로 측정함에 따라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와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의 크기 비교를 통하여 예비은퇴자들을 분류할 수 있었다.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가 더 큰 경우 실제 준비금액보다 더 많은 부분 준비되어있다고 생각하여 은퇴에 닥쳤을 때 자금 부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대의 경우 실제 준비부분을 과소평가하여 좀 더 많이 준비할 수 있는 동기마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은퇴자금준비도 값을 비교한 결과 주관적 은퇴만족도가 더 큰 경우가 74%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은퇴준비를 늦추거나 은퇴준비를 소홀하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가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은퇴자금 계산법 등의 교육을 통해 은퇴준비 동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은퇴준비자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동산과 동산, 거주 부동산과 투자부동산을 나누어 정확하게 그 값을 계산하지 못하였으며, 국민연금액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 역시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 값을 과소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준비된 자산 부분에 대하여 향후 꾸준히 자산가치가 늘어날 것으로 산출하였으나, 부동산가격의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 노후자금은 예상외로 부족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또한 상속할 재산을 고려하여 예비은퇴자들에게 그 가치를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상속이라는 것은 실제 예상과는 많이 다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은퇴준비자금 역시 계산과는 다를 수 있다는 한계 역시 존재한다. 또한 은퇴필요자금에서도 예상하는 은퇴생활비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나 은퇴 이후 부정기적이지만 큰 비용이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했다는 점 역시 한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여 추후 객관적인 은퇴자금준비도와 주관적인 값을 비교한다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

- 김미혜(2010).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노후준비교육의 방향. *Forum for Labor Force Development for the Aged*, 5, 29-58.
- 보험연구원(2011). 2011보험소비자설문조사 결과 보도자료 11-06.
- 서울시복지재단(2008). *서울시민의 노년준비실태 및 지원체계 연구*, 2008-연구-15.
- 서울시복지재단(2012). *노인능력 활용방안 연구*, 2012-22. 통계청. kostat.go.kr.
- Baek, E.(2008). Determinants of retirement income adequacy of the retirees.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24(2), 27-51.
- Baek, E.(2009). Determinants of retirement satisfaction of retiree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44, 345-372.
- Choi, H., Joo, S., Kim, M. and Kim, J.(2009). Developing of the retirement readiness index of South Korea. *Journal of Consumption Studies*, 20(3), 189-214.
- Hanna, S.and Garman, E.T.(2003). Projected retirement adequacy of workers age 50 to 61: The role of 401(k) plans in the context of total wealth. *Profit Sharing/401(k) Council of America*, 1-38.
- Jeon, S., Kang, S. and Lim, B.(2009). The retirement asset adequacy of the National Public Pension and the retirement pension. *The Korean Economic Review*, 57(3), 67-100.
- Joo, S. and Vanda W. Pauwels.(2002). Factors affecting workers' retirement confidence: A gender perspectiv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ing*, 13(2), 1-10.
- Jung, J. and Yang, S.(2013). Factors on 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Focusing on money transfer between generations.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7(1), 199-219.
- Kim, J., Kwon, J. and Anderson, E.A.(2005). Factors related to retirement confidence: Retirement preparation and workplace financial education.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ion*, 16(2), 1-20.
- Lee, J. and Choi, H.(2009). A study of Korean retirees' retirement wealth adequacy and its determinants: A comparison of between objective estimation re-

sults and subjective recognition.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9(1), 215-230.

Moon, S. and Yuh, Y.(2001). Economic status of pre-retired households in retirement. *Journal of Consumption Studies*, 12(1), 115-131.

Moore, J. F. and Mitchell, O. S.(2000). Projected retirement wealth and savings adequacy, In O.S. Mitchell, P.B. Hammond and A.M.Rappaport(Eds.). *Forecasting retirement needs and retirement wealth*. (68-94). Philadelphia,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OECD(2009). Health at a Glance 2009. OECD Indicators.

Park. C.(2008). Economic Preparations for Aging of the Middle and Old-Aged and their Determinan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0(3), 275-297.

Ryu, K., Lee, B. and Kim, D.(2009). Replacement rate of private pensions and the adequacy of retirement income security in Korea. *Journal of Insurance Studies*, 83(1), 93-121.

Yang, S. and Jung, J.(2010). A study on household financial indexes of Korea FP(Financial Planner). *Financial Planning Review*, 3(1), 109-137.

Yuh, Y. & Kim, J.(2007). Adequacy test of retirement wealth using simulations. *Journal of Money and Finance*, 21(2), 1-30.

Yuh, Y. Joung, S. & Moon, S.(2007). Preparation for retirement of Korean households. *Consumption Culture Study*, 10(3), 129-155.

Yuh, Y.(2005). Retirement wealth adequacy of Korea middle-class household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5(1), 21-36.

Yuh, Y., Montalto, C.P. & Hanna, S.(1998). Are Americans prepared for retirement?.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9(1), 1-12.

- 접수일 : 2012년 11월 15일
- 심사일 : 2013년 01월 15일
- 게재확정일 : 2013년 02월 12일